

네부타의 집 와 · 랏세

와 · 랏세는 2011년 1월에 문을 연 네부타 마쓰리의 역사와 예술 전시
뮤지엄입니다. 뮤지엄의 이름 '와 · 랏세'는 '와라이('웃음'이라는 의미의 일본어)'의
머리글자와 네부타 마쓰리의 구호 '랏세라'에서 유래되었습니다. 아오모리역에서 도보
1분 거리에 위치한 와 · 랏세에서는 네부타 마쓰리의 매력을 쉽게 그리고 깊이 있게 알
수 있습니다.

검은색과 빨간색의 커다란 건물은 아오모리항을 등지고 서 있습니다. 뮤지엄에
들어서면 북과 피리, 심벌즈로 이루어진 전통적인 하야시(축제의 흥을 돋우기 위한
음악)가 훌러 네부타 마쓰리 날 밤의 분위기를 체감할 수 있습니다. 환상적인 조명으로
밝혀져 있는 2층 '네부타 타임 터널' 안에서는 네부타의 역사와 제작과정을 소개하고
있습니다.

축제가 끝난 후에는 수상을 한 4대가 네부타 홀에 전시되며, 각 네부타의 구조와
스토리가 소개됩니다. 나무와 철사로만 되어 있는 단계부터 완성에 이르기까지
세부적인 제작공정을 볼 수 있습니다.

네부타사(네부타 장인)가 그린 밀그림도 전시되어 있습니다. 밀그림은 상세한
설계도라기 보다는 그림에 가까운데, 1년이라는 시간에 걸쳐 만들 때의 지침이자
예술적인 디자인의 열쇠가 되는 것으로 뛰어난 장인의 상상력을 엿볼 수 있습니다.
2차원적인 밀그림을 보면 조립되기 전이라도 표정이 풍부한 네부타를 상상할 수
있습니다.

이 뮤지엄에서는 네부타를 만져 보거나 네부타 마쓰리 무대 뒤를 알 수 있는 강좌
및 워크숍에 참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. 북과 시노부에(대나무 피리),
데부리가네(손바닥 크기의 심벌즈)로 축제의 흥을 돋우는 하야시 연주법을 배울 수도
있으며, 그 밖에 미니 금붕어 네부타나 네부타 탈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.